

“이 대통령,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라면·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 서민생활 옥죄

관련 부처에 ‘물가안정’ 특명 실질적 대책 기대

‘성정도 좋고 규제완화도 좋지만 우선은 당장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게 ‘고삐 풀린 물가잡기’는 첫 과제가 주어졌다.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미국발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첫 시험대는 ‘물가’=이명박 정부의 첫 작전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우선은 급상승하는 물가부터 잡아야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공산품과 식료품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

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

따라서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고삐 풀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라면·사료값 인상=지난해 크게 오른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라면·과자류와 유제품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식품가격이 치솟고 있다. 업계는 원료인 밀가루·치즈 등의 가격폭등으로 제품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밀(소맥)과 대두(콩)의 국제 선물가격은 1년 동안 50~60% 뛰었고, 치즈 역시 중국의

수요 급증 등에 영향받아 반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곡물이 강세로 사료값이 뒀다다 수급 불균형으로 비료가격까지 오르면서 당장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협력 등에 따르면 돼지 사료값은 현재 kg당 400원 안팎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0~300원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고, 비료 역시 지난 달부터 평균 24% 인상됐다. 여기에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면세유 등유가 7개월 만에 l당 481원에서 745원으로, 경유가 469원에서 756원으로 61% 뛰었다. 봄철 농병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농업 원자재 가격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져 농민들에게 시름을 더하고 있다.

◇어떤 대책 나올까=이 대통령으로부터 물가 안정이라는 ‘특명’을 내려받은 재정경제부는 개별 품목별로 물가동향을 재점검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는 우선 산자부, 농림부와 협의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원유와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한우 분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사료 외사구매에 따른 이자부담이 연 12~24%로 과중한 만큼 정부가 연 3%, 상환기간 1년 등의 좋은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빌려준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농협 등을 불러 지원기준 등을 논의했고, 지금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과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재원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초 신임 장관 취임 후 구체적 방침을 받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차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재기·투기·고액수강료 등 새정부 첫 세무조사

정부가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사재기, 부동산투기, 고액 수강료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을 등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강도높은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철근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행위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료가격 상승을 빌미로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의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서민의 사교육비 부

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학원의 고액 수강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신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들의 사재기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뒤 국제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세포탈, 담합 등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업계가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칼슘 2배 사과·딸기 신세계 이마트 서울 용산역점은 24일 칼슘성분 강화비료로 재배해 기존의 상품보다 칼슘이 2배 이상 많이 함유된 고품질 사과와 딸기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건설사 부도 급증 대안 절실

작년 부도업체 수 58% 늘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공공공사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건설회사 부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한건설협회가 24일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120개사로 이 가운데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는 15.8%인 19개사로 집계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런 부도업체 통계는 전년도의 12개사에 비해 58% 늘어난 것이다. 또 2006~2007년 2년간 부도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행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은 총 51개사로, 전체 부도 건설사의 22.6%에 달했다.

협회는 이처럼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의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최저가낙찰

제 확대에 따른 출혈 수주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제 공사의 평균 낙찰가율은 예정가의 50~60%대에 불과해 이런 공사가 늘어날수록 낙찰업체들의 경영을 압박하게 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2001년 도입한 최저가낙찰제는 당시 1천억원 이상 입찰자격을 가진(PQ) 공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말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된 데 이어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조준현 건설 정책실장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돌아선 만큼 우리도 최저가제 확대를 유보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73회)		
당첨번호	2등번호 수	당첨자 수
1 8 24 31 34 44	6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339,543,100	3
2	5개 숫자+번호 일치 79,512,931	21
3	5개 숫자 일치 1,523,515	1,096
4	4개 숫자 일치 59,431	56,192
5	3개 숫자 일치 5,000	942,078

팝콘복권 (제9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2조 675480
		5조 153000
2	1억	5조 753733
		5조 459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94659
5	50만	각조 42
		각조 80
6	2천	각조 41
		각조 2
7	1천	각조 4
		각조 3

참여정부, 주가 상승률 ‘역대 최고’

5년간 175% 올라

25일 막을 내리는 참여정부 시대 주식시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이후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일인 2003년 2월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616.29에서 1,686.45로 무려 173.65% 급등했다.

5년 단임제가 시작된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의 지수 상승률은 2.44%에 불과했고, 집권 말기에 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는 지수가 19.61% 떨어졌다. 국가부도 사태라는 참화 속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주식시장은 13.94% 상승하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주식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유동성이 급속히 팽창해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집권 말기에는 서브 프라이 모기 지 부실이 불러온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역대 최고 주가 성장표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었다.

10대 그룹별로 보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시가총액이 32조2천720억원으로 무려 2천05.84% 급증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11조3천406억원, 1천07.11%), 한화그룹(7조2천263억원, 922.11%), GS그룹(12조2천585억원) 등도 시장이자 3~10배 정도 커졌다. /연합뉴스

제약업체 공채 잇따라

제약업체들이 인력채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

24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다음달 3일부터 상반기 공채를 시작한다. 모집분야는 해외·영업·연구개발·제조공정·임상·마케팅 등이다.

종근당은 제약업계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장교 출신자는 우대한다.

대웅제약은 물류·품질관리·임원비서·교육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물류는 전문대졸 이상, 품질관리는 전문대 혹은 4년제 대졸자로 산업공학, 화학공학 계열 전공자, 인원 비서는 비서학 전공의 대졸자 등 부문별로 지원 자격 요건과 채용전형, 일정이 다르다. 이밖에 삼일제약과 수도약품공업도 신입·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연합뉴스

새 대통령 출범후 달라질 부동산 제도 9월 지분형분양주택 등장 도심 재개발 등 활기 띌듯

이명박 정부가 맞을 올림에 따라 부동산 제도도 상당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시골벽격하게 만들었던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대신 새로운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주택’이 등장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모드가 전환된다.

◇9월부터 지분형 분양주택 등장=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는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다. 실수요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외에 임차권, 처분권을 갖게 된다.

참여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폐지되거나 재시행하더라도 큰 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개발로 무게중심 이동=참여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로 신도시를 개발해 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도심 재개발에 큰 비중을 둘 전망이다.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움직임을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외곽이 아닌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재건축 움직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신혼부부용 주택’ 도입=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전용 주택이 하반기부터 선보인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연간 전국에서 공급되는 50만가구중 12만가구를 신혼부부 전용으로 떼어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건교부는 상반기중에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부터는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었던 공공택지 개발을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국제선 항공료가 소폭 내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2월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데 따라 국제선 유티리티요금을 3월 1일부터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노선의 경우 왕복 항공요금이 기존보다 3만4천원 정도 인하된다. 대한항공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 조만간 항공요금을 내릴 예정이다.

국제선 항공요금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유티리티요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1월 유럽 왕복항공료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불과 한달 만에 이처럼 다시 내리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유럽·호주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티리티요금을 104달러에서 86달러, 동남아·동북아·사이판 등 단거리의 46달러에서 38달러로 낮춘다. 또 일본 노선은 유티리티요금이 24달러에서 20달러로 인하된다. /연합뉴스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료 소폭 인하

환란 이후 일자리 매년 18만개 줄어

현대경제연구원 “고용창출 능력 급격 저하”

외환위기 후 우리 경제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규모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18만5천개나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고용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개수가 외환위기 이전인 1993~1997년의 연평균 약 49만5천개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2002~2007년 31만개로 크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1%포인트당 증가한 일자리 수도 1993~1997년에는 연평균 약 6만3천개였으나 2002~2007년에는 약 5만9천개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은 감소했고 서비스업도 다소매입 부진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직종별로는 상위 직종의 전문가의 고용과 하위직 종인 단순노무 종사자의 고용은 급증했지만 중간직 종인 기능원 및 관련기능사자는 감소하는 등 중간직 종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저하됐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HIMEC	[국비지원]일본 IT취업전체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5	062-380-8400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5	062-601-7213
학성엔지니어링	장규직 토목설계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1-375-8005
드림랜드	일본여행사 내근직, 현지가이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227-4404
엔지테크	[광주/서울/부산] 프로그램 개발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675-8750
인포드림넷	[한노로텔레콤 고객센터]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236-0217
보루네오기구	판매 및 매장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374-8847
하이비 광주지점	마케팅 및 관리직 경력사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29	053-431-0321
근화씨엔씨광주지사	경리 / 재고관리 경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350-8383
현대G&A	품질관리 경력사원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2/29	032-584-2216
한국생신기술연구원	박막 증착 및 식각 공정/장비 운영 연구 발전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2	062-6006-508
중원철강	출발, 결산보고 회계, 사무보조, 전산입력-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03	062-374-6991
대동건설	현장공무(과, 차장급) / 현장소장(부장급)	초대졸/경력10년	2800~3600	03/03	061-763-2634
AIG손해보험	AIG 순천/센터 팀장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3/03	061-906-763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